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기독교 박해지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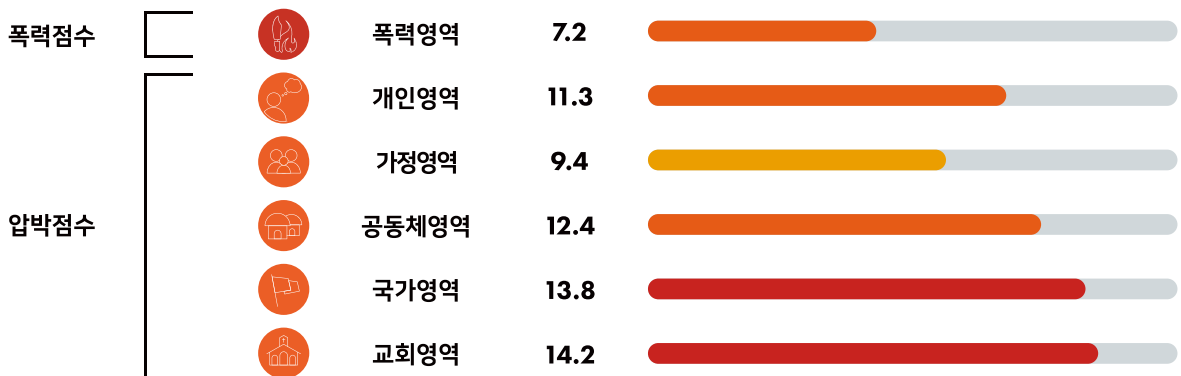
35위

베트남 (VIETNAM)



©Alamy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정치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지만, 토지 강탈 사건이나 환경 문제 등으로 투옥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대규모 토지(예: 주변 수녀원, 학교 또는 병원)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개발 목적으로 이를 몰수하기도 합니다. 드물지만 지역 정당 지도자가 주도하는 경우 가톨릭 신자들은 국가 간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주정부 관리들이 가톨릭 미사를 방해한 사건처럼 말이죠. 특히 베트남 중부와 북부의 외딴 지역에서는 전통 개신교 신자와 토착 종교 개종자 모두 신앙에 대한 집중적인 압박과 폭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부분은 몽족과 같은 소수민족에 속해 있으며 사회적 배제와 차별,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때때로 파괴되고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2023년 6월 11일 닥락성에서 발생한 경찰과 정부 관리들에 대한 공격은 종교나 박해와 관련된 동기는 아니었지만 소수민족인 몽족과 다른 부족 그룹 간의 긴장이 끓어오르고 있으며 쉽게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트남 (VIETNAM)

국가 정보

지도자 : 보 반 투옹

인구 : 99,699,000명

기독교인 수 : 9,635,000명¹

주요종교 : 불교

정부형태 : 공산주의 국가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9,635,000	9.7
이슬람교	49,010,000	49.2
불가지론	12,047,000	12.1
바하이교	11,875,390	11.9

출처²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통일 국가가 되었습니다. 1975년 미국-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오늘날 까지 몇 안 되는 공산주의 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공산당에 있으며, 자유롭게 공정하게 선출되지 않는 국회가 있지만 정치국이 주요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비 애국적이고 반정부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그런 연유로 엄격한 감시와 검열, 차별을 받습니다. 기독교인은 공산당 내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도 장교 자격을 박탈당하고 경찰에 기소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2021년 '정부종교위원회'(GCRA)의 수장이 내무부 차관으로 승진한 것은 정부가 종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베트남은 2022년 12월 미국의 종교자유 특별관심국(SWL)에 등재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2006년 베트남이 최악의 특별우려국(CPC) 범주에서 해제된 이후 처음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3월 9일에 발표된 132페이지 분량의 종교 및 종교 정책 백서에 따르면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FA, 2023년 3월 9일). 한 국가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공안부가 복음주의 교회를 관리하면서 겪은 문제점을 솔직하게 기술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등록되었든 아니든 모든 단체와 지도자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트남 전체 기독교인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교리상 바티칸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티칸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미묘하며 덜 미묘한 시도가 있으며, 이는 아마도 주교 선출에서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바티칸과 베트남은 외교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이면 바티칸이 베트남에 교황청 대표를 상주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로이터, 2023년 7월 16일). 개신교는 여러 교파로 나뉘며, 국가가 인정하는 두 개의 큰 교파는 베트남 남부 복음주의 교회(ECVN-S)와 베트남 북부 복음주의 교회(ECVN-N)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일

¹ 데이터 출처: 토드 M. 존슨과 지나 A. 줄로, 편집.,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라이덴/보스톤: 브릴, 2023년 3월 액세스)

² 그 외에는 중국 민속, 신종교, 시크교, 정령교, 도교, 유교, 자이나교, 신도교, 조로아스터교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출처: 토드 M. 존슨과 지나 A. 줄로, 편집.,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라이덴/보스톤: Brill, 2023년 3월 액세스)

반적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감시를 면밀히 받고 있습니다.

소수 민족 출신의 기독교인인 센트럴 하이랜드의 지역 사회 구성원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팬데믹 위기 동안 이를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닥락 테러가 종교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만, 베트남 경찰이 테러 이후 '중부 고지대 몬타그나드 복음주의 그리스도 교회'의 교회 건물을 보여주는 동영상 공개한 것은 중부 고지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베트남 국민, 2023년 7월 6일). 한 국가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복음주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반동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언론, 뉴스, 국영 텔레비전은 국민들이 "이 교회를 지역사회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소수 민족 중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압력과 폭력은 특히 다음 지방의 중부 및 북서부 고원 지대에서 강합니다: 박장, 박닌, 빈푸옥, 닥락, 닥농, 디엔비엔, 지아라이, 하장, 하남, 호아빈, 콘툼, 라이차우, 람동, 라오까이, 응헤안, 닌투언, 푸옌, 꽝빈, 꽝응아이, 손라, 탄호아, 트라빈, 엔바이. 이는 미국 국무부가 2022년 IRFR 베트남 19페이지에 명시한 내용: "가톨릭 지도자들은 가장 문제가 많은 지역이 중부 고원지대라고 보고했습니다.

(지아 라이, 닥락, 닥농, 콘툼, 람동성)과 호아빈, 손라, 라오까이, 엔바이 성을 포함한 북서부 고원지대입니다."과 일치합니다.

박해 받는 성도

이주민 기독교 공동체들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농촌 지역에서 현지 교회와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고립됩니다. 이 범주에는 대만, 한국,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감시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베트남 복음주의 교회는 베트남의 주요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전자는 2016년에 가톨릭 대학을 개교했지만 당국의 토지 수용과 가톨릭 활동가들의 체포 문제가 증가했고, 2020년 12월에는 ECVN(S) 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

불교 또는 애니미즘 배경을 가진 개종자들은 당국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으로부터도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합니다. 보통 지역 단위의 공산당 당국은 개종자 대부분이 소수 민족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이들을 의심하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비전통 기독교 공동체는 복음주의 및 오순절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교단이 많기 때문에 가정 교회에서 모입니다. 이들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공산주의 및 독재정치와 혼합된 공산주의 이후의 탄압:

공산당은 중앙 고원, 북서부 및 북동부에서 기독교 소수 민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지역을 괴롭히고 모든 종교 기관이 정부 종교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붉은 깃발' 그룹으로 알려진 지역 범죄자들을 동원하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교회 재산을 약탈하도록 암묵적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가장 큰 기독교 공동체이므로 정부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은 공산주의 통치 하에서 사회적 불의와 환경 문제를 강조하는 가톨릭의 주장으로 인해 종종 징벌적 폭력과 교회 소유 토지의 몰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부 마을은 "공산주의 마을" 또는 "기독교인 없는 마을"로 명명되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마을에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씨족의 탄압

촘촘한 마을 공동체는 마을 지도자와 가족 구성원에 의해 기독교 개종자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강요합니다. 부족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부족 지도자들은 종종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의 문화와 유산에 대한 반역자로 간주하여 공동체에서 배제합니다. 공동체 자체도 기독교 개종자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마을에서 추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적 부패 및 범죄

가톨릭 교회를 겨냥한 토지 탈취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도시에서 발생하며, 정부 관리가 토지와 재산을 몰수한 후 민간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톨릭 교회와 기타 기독교 소수 민족이 소유한 토지가 주요 표적이 됩니다. 퇴거는 종종 범죄 집단과 '붉은 깃발' 경비대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눈에 잘 띄지는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박해 상황 차이

여성

여성의 직장 참여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지만, 가사 노동의 비중이 불평등하고 여성은 종속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가 보유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추구하지만, 유교적 가치관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학교 교과서에 포함되고 문화적 남아선호 사상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성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 특히 개종자나 부족 문화권의 여성과 조혼을 강요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억압과 폭력, 강제 이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여성과 소녀들도 성폭행에 취약합니다.

여성의 전형적인 압력 포인트:

- 강제 이혼
- 폭력 - 신체적

남성

남성은 종종 직장에서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실직과 감시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베트남에서는 남성이 주요 부양자이므로 이로 인해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마비됩니다. 사회 내에서 그들의 입지를 약화시킵니다. 구금된 수감자들은 가혹한 대우와 신체적 구타,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습니다. 의무 군 복무를 하는 남성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읽거나 다른 기독교적 관습에 참여할 수 없다는 압박감도 있습니다.

남성의 전형적인 압력 포인트:

- 비즈니스 / 직업 / 업무 접근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정부에 의한 투옥
- 군대 / 군인 징집 / 양심에 반하는 복무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언어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3	35	68
2022	25	70
2021	19	71
2020	19	72
2019	21	72

WWL 2024의 전체 점수가 소폭 하락한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점수가 소폭 하락했기 때문이며, 특히 국가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소수 민족 지역의 신고가 막히고 때로는 불가능에 가깝게 된 점은 주목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 관련 규정은 또 다른 불확실성의 원인을 추가한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서류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이 규정은 관료주의를 줄이거나 정부 허가를 받으면 공산주의 이념을 따라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완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제한 및 제한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공간은 제한적이고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종교에 관한 새로운 규정 초안이 시행되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위한 환경은 더욱 엄격해지고 관료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

- 2023년 1월 5일: 루터교 목사 딘디엠이 응예안성 제6교도소에서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그는 2018년 "인민 정부 전복 시도" 혐의로 16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베트남, 2023년 1월 9일).
- 2023년 3월 22일: 지역 관리들이 콘툼 지방의 닥 지악 본당에서 열린 가톨릭 예배를 습격하여 예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UCA 뉴스, 2023년 3월 27일).
- 2023년 4월 8일: 개신교 선교사 Y Krec Bya가 닥락성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Voatieng Viet, 2023년 4월 19일).
- 2023년 5월 25일: 가톨릭 활동가 피터 부이 투안 람이 공산당에 반대하는 온라인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다낭 법원에서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UCA 뉴스, 2023년 5월 25일).

보고 연도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들	공격을 당하거나 폐쇄된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	구금된 기독교인들	투옥되거나 정부에 의해 처벌당한 기독교인들
2024	1	7	20	5
2023	1	5	10*	10*

이 표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에서 몇 가지 범주 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영역

시골 지역에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하며, 더 넓은 지역 사회로부터 폭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자유가 조금 더 보장되지만 경찰의 괴롭힘과 심문은 흔한 일입니다. 개종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특히 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이질적이고 가족과 유산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종 가족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면 기독교에서 재개종하든지 아니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쫓겨나 배척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 영역

베트남의 기독교 어린이들은 교육 과정 내내 공산주의 교리의 형태로 반기독교적인 교육을 강요받습니다. 특히 부족 지역에 있는 등록되지 않은 교단이나 교회에 소속된 기독교 어린이들은 자신의 신앙이나 부모, 민족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개종자 중 일부는 동료 학생들과 학교 관리자로부터 괴롭힘과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결혼한 개종자들은 이혼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가족 구성원을 거부하거나 퇴거시키고 지원을 끊는 경우도 흔합니다.

공동체 영역

분쟁 지역의 부족 공동체는 기독교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원합니다. 지역 당국은 기독교 단체를 이질적이고 위험한 존재로 간주하여 지역 사회에 기독교 단체를 제한하도록 권장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기독교인들과 승진 예정자들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군대와 경찰 내에서 기독교인은 장교로 선발될 자격이 없습니다. 베트남 북부에서는 국가 당국은 기독교인들이 정부의 명령에 저항하거나 교회로서 모임을 계속할 경우 의료 혜택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OD 현장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회복지, 의료 및 기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빈민 증명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 지역 당국은 종종 이들을 더 이상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빈곤 증명서



를 회수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기독교인이니 교회가 당신의 삶을 돌봐주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국가 영역

베트남은 공산주의 이념을 엄격하게 따르며 다른 모든 신념은 반대합니다. 정부는 규정된 기간 내에 등록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종교 활동 요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법에서 요구하는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산당원은 종교를 고백할 수 없으며, 군 장교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장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합니다. 공무원 자격에 따르면, 3대까지 직계 가족 중 "기독교인이 없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기독교인과 너무 우호적"인 경우 강등되거나 해고됩니다. 설령 직위를 유지하더라도 수당이 삭감되고 승진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서 기독교인들은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복원하려는 것으로 묘사되고 파괴적이고 반정부적인 활동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한 가톨릭 신부가 용감히 코로나19 백신 기금 마련을 비판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기부를 요청하자 관영 언론은 즉시 그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가해자는 거의 예외 없이 재판에 넘기지 않습니다.

교회 영역

교회는 감시를 받으며 때때로 집회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법에 따라 당국에 활동을 등록해야 합니다.

현장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또한 정부는 교회에 교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명단을 가지고 제복을 입고 집집마다 다니며 교회 소속인지 '확인'합니다. 이는 (젊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교회 회원임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겁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자료를 대량으로 입수하는 것은 특히 수입 자료이거나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시된 모든 자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모든 수입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러나 소량의 기독교 자료를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교회 지도자와 활동가들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강제 망명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베트남은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 협약(CAT)
4. 여성차별 철폐 협약(CEDAW)
5. 유엔 아동권리 협약(CRC)

베트남은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차별을 받는 기독교인(ICCPR 제26조)
-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는 기독교인(ICCPR 6.1조)
-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체포된 기독교인(ICCPR 예술 9조 및 19조)
- 체포되면 기독교인들은 구타와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경험합니다(ICCPR 예술 제18조 및 제10조)
- 기독교 아동은 학교에서 배척당하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으며 신앙을 이유로 의료적 필요를 방치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ICCPR 제18조, CRC 제14조 및 24조)
- 기독교 여성 개종자들은 비기독교 남성과 결혼을 강요당하고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는다(ICCPR 23조, CEDAW 16조 및 ICESCR 10조)

이외 소수 종교집단의 상황

공산주의 정권하에서 흔히 그렇듯이 베트남 당국은 모든 종교 단체를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기독교인과 함께 특별히 감시를 받는 종교는 조다이교, 호아하오 불교, 이슬람교입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협의회에서 조직하는 종교 단체는 설교 내용을 검열하는 것 외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립적인 종교단체는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정부, 특히 그 지도자들로부터 심각한 압박을 받습니다. 이는 괴롭힘, 협박, 투옥, 재산 몰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트남 오픈도어 사역

오픈도어선교회는 현지 교회 파트너들을 통해 베트남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 그들과 함께합니다. 신체적 공격과 가족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추방은 신자들이 직면하는 몇 가지 예입니다. 국경없는의사회의 개입은 존재감, 구호, 실질적인 지원과 옹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오픈도어선교회는 현지 파트너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베트남에서 핍박받는 신자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독교 자료 및 문헌 제공
- 리더십 교육
- 제자 훈련 프로그램
-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그램

